

아버지와 나 시리즈 2

- 성령님 살리시는 영

<차례>

- Chapter 1 :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Chapter 2 : 성령님은 '은사'를 주십니다.
Chapter 3 : 성령님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Chapter 4 : 성령충만, 성령소멸, 성령훼방, 성령세례

♣ '아버지와 나' 시리즈를 발간하며

아버지를 알면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아버지 앞에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내가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들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비밀들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알고, 신뢰하고 나아가면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들을 12가지 주제로 묶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 좋으신 나의 아버지
성령님 - 살리시는 영
예수님 - 구원의 이름
사탄의 영적전쟁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기도 - 우리의 살 길
교회 - 세상의 소망
리더십 - 영향력 있는 한 사람
예배 - 설레이는 만남
선교 - 존재이유
사역 - 인생의 행복
성경 - 내 길의 빛

좋은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서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대는 나의 동역자요, 동지요, 친구입니다.
나의 꿈, 그대 젊은이를 사랑합니다.
- 그대들의 영원한 친구 준석이가 뜨거운 가슴을 품고 쓰다.

하나님 - 좋으신 나의 아버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롬 8:2)*

성령님이 지금 그대 곁에 계십니다. 바로 곁에 계시다니깐요.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살리시는 영’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좋으신 분이죠. 정말 좋으신 분이죠. 선물 좋아하세요? 성령님은요, 그대와 함께 계시면서 선물도 주십니다. 그것이 ‘은사’입니다. 왜요? 일을 잘하라고! 어떤 일? 좋은 일. ‘사람 살리는 일!’ 성령님은요, 그대의 성품을 바꾸십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선물도 주시고, 사람도 바꾸시면서, ‘그대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의 능력 안에 있는 삶은 박진감 있고, 기대되고, 설레이는 삶입니다. 기대하세요.

▣ 다음 글을 함께 읽읍시다. _____

전도하려고 했더니 글썽 그런 일이

잊지 못하는 기억이 있다. 1992년 2월 어느 겨울 날 저녁이었다. 짐을 주섬주섬 챙겨서 기도원에 올라온 지 이틀이 되는 날이었다. 고등학생 약 80명, 교사 15명, 그래서 95명 정도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 고등부 겨울 수련회!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었다. 3번을 읽었다. 1차는 그냥 1-28장까지 소리내어 읽기. 2차는 지도에 장소를 찍으면서 읽기. 3차는 1-28장까지 각 장별로 중요한 사건을 적으면서 읽기. 그렇게 3번을 읽었다. 그날 저녁이 지나면 다음날은 춘천으로 전도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세워 놓았다. 수련회 마지막 날 꾸벅꾸벅 졸다가 비몽사몽간에 폐회예배 드리고, 흥한 몸골로 내려오는 수련회를 탈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침을 먹자마자, 춘천으로 가는 기차를 한 량(72석) 빌려서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면서 그렇게 가기로 했다. 4영리를 가지고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면서...그리고는 춘천에 내려서 춘천 명동거리에서 닭갈비를 조별로 사먹고, 그리고는 또 노방전도. 그리고는 널따란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어린이 회관 옆 잔디밭에 모여서 찬양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미리 4영리를 통해서 전도하는 방법도 교육시켰다. 그리고는 그렇게 전도여행을 가기로 작정된 날의 바로 전 날 저녁, 우리는 저녁집회로 모였다. 찬양하기 시작했다. ‘우리 주만 찬 하나님’ 그리고는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는 다시 찬양하기 시작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성령님께서 너무나 놀랍게 역사하셨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났다. 아이들은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한두 명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인 사람들의 거의 반 수가 방언을 함께 하기 시작했다. 회개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는 아이들도 왠지 모를 거룩한 경험을 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새벽 1시가 되어서야 그 집회가 끝났다. 놀라운 경험이었다. 잊지 못할 기억이었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함께 모인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런 확신이 들었다. ‘사도행전은 진짜구나!’ ‘성령님은 진짜 계시구나!’ 다음날 예정대로 기차를 탔고, 어색한 포즈로 전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곳에서도 역사하셨다. 그 기차 안에서 약 20여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고등학생들의 입술을 통하여, 아무 생각없이 ‘를

루랄라' 노래 부르며 춘천으로 놀러 가던 그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했더니, 글썽 그런 일이!

살아나는 사람들

살아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행복이다. 그보다 짜릿하고, 그보다 가슴 뿌듯한 순간이 있을까? 예배를 드릴 때 무릎을 꿇을 때마다, 어김없이 보는 모습이 있다. 그것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게 된다. 낙망하고, 한숨짓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된다. 얼굴빛이 변하고 말이 바뀌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것이다. 시들었던 화초가 물을 머금고 살아나듯이, 흐느적거리던 물고기가 물을 만나 살아나듯이, 그렇게 살아난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신 것이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믿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살아난다. 어떤 이는 떠들썩한 경험을 통해서 살아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백조처럼 부드러운 경험을 통해서 살아난다. 사람마다 그렇게 다를 수가 없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살아난다는 것이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다. 고백이 달라진다. 얼굴 인상이 달라진다. 발걸음이 달라진다. 예뻐진다. 멋있어진다. 그렇게 살아난다.

함께 나누시다

- 그대는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체험한 적이 있나요? 잔잔한 비를 맞듯이, 아니면 폭풍에 흔들리듯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 시들었던 화초처럼 그렇게 풀죽어 있다가 예배를 통하여 살아났던 경험이 있나요? 함께 나누어 보세요. 최근의 경험이면 더욱 좋겠지요. 오래된 것도 괜찮아요.

☞ Chapter 1 -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사탄이 역사하면 죄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살아납니다.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 말씀읽기

사도행전 2장 1-47절을 함께 읽으세요.

☞ 묵상하기 1

오순절 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절)

☞ 참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이라는 말은 본래, ‘지방말’이라는 뜻이죠. 헬라어 성경엔 ‘(글로사)’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그대로 번역하면 ‘혀’ 또는 ‘말’이라는 뜻이죠.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방언’은요, 그야말로 이야기가 통하는 그 당시의 말이었어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였죠. 오늘날도 가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영어를 한번도 배워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문법 하나 틀리지 않고. 부러우세요?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시 는 거죠. 그러나 요즈음 방언의 대부분은 잘 알아듣지 못하죠. 고린도교회에 임했던 방언과 비슷하죠. 그러나 우리가 요즈음 하는 방언도 ‘언어’는 언어예요. 누가 듣느냐구요? 하나님 이 들이시죠. 방언에 대해서는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기를 원해요.

☞ 목상하기 2

성령님이 임하신 후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달라졌습니까? (5-36절)

나눔시다

- 그대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대의 이전모습과 현재모습을 비교해 볼 때에 달라진 모습 이 있습니까? 함께 나누어 보세요.
- ‘이렇게 달라졌으면...’하고 바라는 부분이 있으세요? 소심한 성격, 조리없는 말, 우울한 성격...뭐 그런거 있잖아요. 그 부분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

☞ 목상하기 3

성령님의 역사로 탄생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42-47절)

☞ 참고

성령과 교회

교회는요, 성령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열어놓아야 합니다. 예배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교제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관계에 있어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교회는요, 성령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냐구요?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사람들이 살아나니까요. 그 일을 하려는 성도들을 아낌없이 지원하십니다. 그 일을 하려는 교회를 아낌없이 지원하십니다.

나눔시다

- 그대가 속한 교회공동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 계속 더 기도해주어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그 부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세요. 열심히, 아주 열심히, 밥을 먹을 때보다 더욱 열심히! 불평과 비판보다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중보기도이니까요.

♣ 말씀읽기

요한복음 14:16절과 로마서 8장 2절을 함께 읽읍시다.

☞ 묵상하기 1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 14:16)

☞ 참고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요, ‘보호할 보’, ‘은혜 헤’, ‘스승 사’라는 뜻입니다. 즉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이라는 말이죠. 쉽죠? 이 말은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텐데,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옆에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옆에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 그대 곁에 계세요. 인사 한 번 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러면 대답하실 것입니다. ‘어, 그래! 안녕!’ 그토록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눔시다

- 성령님께서 옆에 계시다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 성령님께서 바로 옆에 계시는 것을 실제로 매일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아마도 그대의 삶은 많은 부분 달라지겠죠? 어떤 부분에서 달라질까요?

☘ 목상하기 2

성령님을 어떤 법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롬 8:2)

☞ 참고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성령님은 ‘생명의 법’입니다.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살아나죠. 살맛나는 세상이 됩니다. 사탄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사탄은 ‘죽이는 영’이지요. 사탄이 역사하면 사람이 죽어갑니다. 죄를 짓게 되구요, 죄 때문에 죽어가지요. 죽을 맛나는 세상이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며, 그 음성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게 되죠. 거기에는 하나됨, 격려, 겸손, 순종..... 그런 것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이 역사하면 세상의 음성이 들리게 되며, 그 음성을 따라 살게 됩니다. 세상의 법을 따라가게 되죠. 거기에는 다툼, 시기, 나누임, 경쟁, 교만..... 그런 것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 순원 기도 제목>

☞ Chapter 2 - 아버지의 속마음을 아십니까?

사람도 친해지면 선물을 주죠. 그렇죠?

성령님도 선물을 주세요.

그것이 '은사'입니다.

선물은 좋은 것이죠. 그렇죠?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

은사는 무지무지 좋은 겁니다.

바라시는 선물 많이 받으세요.

♣ 말씀읽기

고린도전서 12장 8-11절을 읽으세요.

로마서 12장 4-8절을 읽으세요.

☞ 묵상하기 1

은사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고전 12:11)

📖 참고

'은사'

'카리스마'라고 들어 보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있는 뭔가 모를 특별한 힘'을 말할 때 자주 사용하잖아요. '저 사람에게는 카리스마가 있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셨죠? '은사'라는 말이 헬라어 성경에는 바로 이 '카리스마'와 같은 뜻인 '카리스마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선물(gift)'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은사'는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일! 구체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 예수님을 전하고, 낙심한 영혼을 일으키라고 주시는 겁니다.

☞ 묵상하기 2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된 성령의 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고전 12:8-10, 롬 12:6-8)

☞ 참고

성령의 은사들 1 (고린도전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요, ‘어떤 일을 실제로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아버지의 속마음을 아는 능력’을 말하죠. ‘지식’이란 자연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을 말하기보다, 성경에서 사용될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을 말해요. 성령님은 그런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죠. ‘믿음’은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것’을 말하구요, ‘병 고치는 은사’는 그야말로 ‘병을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는 대부분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말하구요,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가 바로 서게 되며, 용기를 얻게 되며, 위로를 받게 되죠. (고전 14:3) ‘영들 분별의 은사’는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말하구요, ‘방언’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영이 기도하는 것’(고전 14:2)을 말합니다. ‘방언통역’은 ‘그 방언의 내용을 통역하는 것’이죠.

☞ 참고

성령의 은사들 2 (로마서)

‘예언’은 위에서 말씀드렸구요, ‘섬기는 은사’는 ‘다른 이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들 밥을 맛있게 먹었는데, 그것들 정리하고 치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있죠. 그런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예요. 그것을 치우면서 안 치우는 사람들을 짜려보면서 ‘자식들, 지들은 안치우고 나만 치워,워,워?’ 그럴다면 은사 아니구요, 기분 좋게 할 때에 그게 은사예요. ‘가르치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이에요. 말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야겠지요. ‘권위의 은사’는 ‘권면하고 용기를 주는 것’을 말하구요, ‘구제의 은사’는 ‘실제적인 물질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해요. 또한 ‘다스리는 은사’는 ‘사람을 이끄는 능력’, 즉 ‘리더십(leadership)의 은사’를 말해요. ‘금휼을 베푸는 은사’는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나눔시다

- 그대의 생각에 그대의 은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서로의 은사를 말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자신 외에 순원들의 숫자에 맞게 쪽지를 준비하세요. 되도록 예쁜 것이면 좋겠지요. 기분 상! -> 그 각각의 쪽지들 위에 자신 외의 사람들의 이름을 쓰세요.
 -> 그리고 그 이름이 적힌 순원을 바라보면서 ‘그 순원의 은사’라고 생각하는 것을 쪽지에 쓰세요. (자신 외에 순원이 5명이면 5장의 쪽지에 각각의 이름을 쓰고, 각각의 사람을 보면서 쓰는 것이지요.)
 -> 다 쓰셨으면, 이름이 적힌 그 사람에게 주세요. (모인 사람이 모두 6명이면, 자신은 자신에 대하여 쓰지 않았으므로, 5명이 준 5장의 쪽지를 받겠지요.)
 -> 그것을 읽어보시고, 나누세요. (아마도 거의 일치할 거예요.)

☞ 묵상하기 3

은사는 왜 주시는 것일까? (고전 12:7)

♣ 말씀읽기

고린도전서 12장 12-30절을 읽으세요.

☞ 묵상하기 1

한 몸과 많은 지체에 대한 말씀이 있죠. 몸과 지체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2-26)

📖 참고

‘다양성’(Variety)과 ‘연합성’(Unity)

사람의 몸에는 ‘다양한 부분들’이 있죠? 눈, 코, 입, 귀, 손, 발.....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서로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각각의 부분들은 서로 다양합니다. ‘역할’(role)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치’(Value)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부분들이 다 소중합니다. ‘역할’(role)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치’(value)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부분들이 다 소중합니다. ‘역할’이 다르다는 것과,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가치’는 같지만, ‘역할’은 다른 수많은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성’과 ‘연합성’을 가지고 있죠.

나눔시다

- 그대는 공동체 안에서 어느 위치라고 스스로 생각하세요? 눈, 코, 손, 발, 입, 아니면 눈썹?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 이렇게 말해 보세요. ‘그대와 나는 달라도 하나입니다. 그대도 소중하고, 나도 소중합니다.’

☞ 묵상하기 2

사람의 몸에 대하여 이야기하신 후, 이 내용을 은사와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는가? (28-30)

나눔시다

- 현재 내가 맡고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 나는 어떤 일들을 하고 싶은가? 솔직하게 말한다면...

참고

‘은사’와 ‘타고난 재능’은 어떤 관련이 있나요?

노래를 잘하면 모두가 ‘찬양인도의 은사’가 있는 것인가? 바꾸어 말하면, 음악적인 재능이 없으면, 그 사람은 ‘찬양인도의 은사’가 없는 것인가?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는가? 바꾸어 말하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는 주시지 않는가? ‘은사’와 ‘타고난 재능’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많은 경우에, 관련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타고난 재능과는 전혀 다르게 ‘은사’가 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고난 재능’이 모두 사람을 살리는 ‘성령의 은사’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위에 ‘성령님의 기름부음이 있을 때에’, 즉 그 부분을 ‘성령님께서 은사로 바꾸어 주실 때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순원 기도 제목>

☞ Chapter 3 - 성령님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과 오래 사귀면

그 사람을 닮게 됩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좋아하는 음식, 웃 입는 취향... 등

성령님과 오래 사귀면

성령님을 닮게 됩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성품이 변하죠.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 말씀읽기 1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을 읽으세요.

☞ 묵상하기 1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방해할 어떤 법이 있나요? (23절)

☞ 참고

'나무와 열매'

배나무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히죠? 예, '배'입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히죠? 예, '사과'입니다. 포도나무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히죠? 예, '포도'입니다. 바꾸어 말해 봅시다. '배'가 맺히면 어떤 나무? '배나무'입니다. '사과'가 맺히면 어떤 나무? '사과나무'입니다. '포도'가 맺히면 어떤 나무? '포도나무'입니다. '나무'와 '열매'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대는 '죄의 나무'였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순간,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나무로? '성령나무'로! 그러므로 그대가 잘나서가 아니라,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대에게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것을 방해할 어떤 법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속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나눔시다

◦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대는 어떤 부분이 변했습니까? 이번에는 '성품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누어 보세요. 예를들면, '나는 화를 하루에 평균 10번 내었는데, 이제는 9번으로 줄었습니다.' 뭐 그런 쉬운 이야기들을...

☞ 묵상하기 2

열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2-23절)

☞ 참고

열매는 단수!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의 열매들은’ (the fruits of the Spirit)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the fruit of the Spirit)이라고 되어 있죠.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이거 뭔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복수로 써야 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헬라어 성경 원본에도 분명히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9가지를 왜 마치 1가지처럼 단수로 쓰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9가지 열매가 다 맺히든지, 아니면 9가지가 다 맺히지 않든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사람에게에는 ‘9가지 열매’가 모두 맺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패키지 상품’처럼이요. 각각의 열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그러나 모든 열매가 다 맺힙니다. 놀랍죠? 그대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 참고

성령의 열매들

‘사랑’은 그야말로 ‘사랑’이구요, ‘희락’은 ‘기뻐하는 것’이에요. 보통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선수가 운동경기에서 이겼을 때처럼 펄펄 뛰면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화평’은 ‘평안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평화란 문제가 없는 상황이 아니고,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다’. ‘오래참음’은 그냥 꺾꺾 참는 것이라기보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끈끈하게 견디는 것’(perseverance)을 말해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자비’는 ‘친절하게 대해 주는 것’이구요, ‘양선’은 그야말로 ‘착한 것’이에요. ‘충성’은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이라기보다, ‘변함없는 것’을 말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말하죠. ‘온유’는 무조건 부들부들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꺾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민수기 12장 3절에서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가 온유했나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꺾었어요. 그것이 ‘온유’예요. ‘절제’는 ‘정도를 지킬 줄 아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바꾸어 가십니다. 좋은 사람이죠. 매력 있는 사람이죠. 멋있는 사람이죠. 우아한 사람이죠.

나눔시다

- 그대는 어떤 열매가 풍성하다고 생각하세요? 자신을 칭찬하세요.
- 바로 옆에 있는 순원에게는 어떤 열매가 풍성하다고 생각하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칭찬해 주세요.
- 자신은 어떤 열매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내어 놓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마치 내 기도처럼 간절히!

☞ Chapter 4 - 성령충만, 성령소멸, 성령훼방, 성령세례

성령님은 그대 곁에 계십니다.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그대에게 쉬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어떨 때는 순종,
어떨 때는 불순종.
어떤 사람은 아예 성령님 자체를 인정치 않음.

성령님께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라집니다.

♣ 말씀읽기 1

에베소서 5장 18절을 읽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읽으세요.

☞ 묵상하기

위의 두 말씀에서 성령님의 음성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 참고

‘성령충만’과 ‘성령소멸’

‘성령충만’이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출렁출렁거리는 물질이 아니라, 곁에 계신 인격이시거든요. 그분이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에 ‘예!(YES!)’하고 ‘말 듣는 것’. 그것이 ‘성령충만’입니다. 내가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상태입니다. ‘성령소멸’이란, ‘성령님의 말씀을 고집을 피우며 듣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불을 꺼버리듯이 끌 수는 없거든요. 성령님은 그대를 떠나지 않으세요. 성령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싫어요!’ (NO!) 하며 ‘말 안 듣는 것’ 그것이 ‘성령소멸’입니다.

☞ 참고

성령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음성이 뒤에서 들리는가? 물론, 그럴 때도 있다. 그런 사건을 부인해서는 안된다. 성경에는 그런 사건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번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는다. 다른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는 ‘성경말씀’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

이다. 성경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신다. 결단하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두 번째는 '설교'이다.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님은 말씀하신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며, 결단하게 하신다. 여러 사람이 동일한 시간에 설교를 들었는데, 마치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게 하신다. 셋째는 '기도'이다.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성령님은 부지런히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 마음을 바꾸어서 스스로 고백하게도 하신다. '하나님, 나 그거 꼭 없어도 괜찮아요' 넷째는 '사건'이다. 어떤 특별한 사건을 겪거나 볼 때에 성령님은 말씀하신다. '살고 죽는 것은 네 손에 달려 있는 것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이 네 곁에 있을 때 잘해. 갑자기 떠나가면 해 주고 싶어도 못 해주잖아'. 가슴 속에 말씀하신다. 때로는 폭풍처럼, 때로는 잔잔한 바람처럼..... 다섯 번째는 '다른 지체', 특히 '리더'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부단히 관심쓰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나눔시다

- 그대의 요즈음 태도는 어떠합니까? 많은 부분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 그대가 순종하기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요즈음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세요. 그 부분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 말씀읽기

마태복음 12장 22-32절을 읽으세요.

☞ 묵상하기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22절)

그 사건을 바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3-24절)

그러한 태도를 보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5-32절)

☞ 참고

‘성령훼방’이란 무엇인가?

위의 말씀에서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1절)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훼방’이라는 말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들을 듣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을 무시한 것 때문에, 자신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까지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훼방’이란 ‘성령님 자체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 멀고 병어리 된 자를 고쳤을 때, 사람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고쳤다고 말했죠. 성령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돌렸습니다. 이 때 하신 말씀이 31-32절 말씀입니다. 31절에서 ‘사람의 모든 죄와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라는 말은 ‘사람에게 짓는 모든 죄와 훼방은 용서함을 얻되’라는 뜻이구요,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라는 말은, ‘성령님 자체를 믿지 않는 자는 용서함을 얻지 못하겠고’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님을 믿지 않는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32절은 똑같은 뜻의 말씀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32절에서 ‘인자’는 그야말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인자’라는 말이 예수님을 뜻하는 말로 쓰이기도 하지만, 이곳에서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번역됩니다. ‘누구든지 말로 사람을 거역하면 용서함을 얻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용서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31절과 똑같은 뜻이죠. 그러므로 ‘성령훼방’이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님 자체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죠. 그러나 때때로 성령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성령소멸’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그대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랴구요.

나눔시다

- ‘성령훼방’과 ‘성령소멸’을 혼동하여 혹시 마음저금로 힘들었던 때는 없었습니까?
주위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 참고

‘성령세례’

요즈음 사람들은 ‘성령세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그렇다면, ‘성령세례’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는 두 종류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성령세례’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 즉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시작한 사람이 어느 순간에 성령님의 강한 체험을 하는 순간’을 ‘성령세례’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표현하는 법은 달라두요, 두 현상은 다 인정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 ‘어느 순간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임한다는 것’. 그런데 이 두 번째 현상을 너무 무시하는 것은 좋은 태도는 아니예요. 성령님은 놀라운 분이예요. 그분과 친해지세요.

성령과 Q.T - 라준석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QT는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질 때, 바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것이다.

살아가는 동안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참 많다. 원하지 않는데도 눈을 들기만 하면 우리를 낙심시키기에 충분한 힘든 상황들이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으려는 근심 걱정은 언제 사라지는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상황이 호전되면 우리네 마음의 먹구름이 사라지는가? 그것은 아니다. 그 어려운 형편의 의미를 알게 되면, 상황은 변함이 없어도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한 형편으로 인도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상처로 다가왔던 과거가 감사의 과거가 된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상처로 다가왔던 과거가 감사의 과거가 된다. 두려움과 걱정으로 다가오던 미래가 기대와 설렘으로 다가오게 된다.

Q.T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아버지의 음성이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다. 객관적인 사건 이야기를 넘어서, 일반적인 선포를 넘어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말씀, 그것을 듣고 싶고 알고 싶은 것이다. 그렇다면 끄끙거리며 나 혼자 말씀 앞에 앉아있어서는 안된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성경이 여러 책 중의 하나가 아니라 살아 있는 말씀의 책으로 다가오게 된다. 모든 사람을 향한 일반적인 말을 넘어서 바로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내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 14:16). ‘보혜사’라는 말은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이라는 뜻이다. 성령님은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 좋으신 분, 성령님! 성령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다. 통달하고 계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고전 2:10,11)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

요즈음 나에게 아주 강하게 들려오는 아버지의 음성은 이러한 것들이다. ‘너는 내 아들을 믿어야 살 수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의 고난에는 뜻이 있다.’ ‘나는 너를 위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들은 최고의 것이다.’ 한번은 시편 16편 6절의 말씀이 내 눈에 들어왔다.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은 아버지의 모습과 마음을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너 양복 재단사를 보았느냐? 어깨를 재고, 허리를 재고, 엉덩이를 재고, 다리를 재어서 몸에 딱 맞게 재단을 하지 않느냐? 줄을 가지고, 너의 아버지 나는 네 인생의 재단사야. 오늘 너에게 허락하는 것들은 내가 너를 재어서 맞춤으로 가장 좋은 것들로 허락하는 것이란다.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너에게 보내주는 사람도 그렇고. 준석아, 그러기에 너에게 허락한 인생의 범위는 내가 재단한 거야. 그것은 최고의 것이야. 실로 아름다운 것이야. 그러니까 감사하며 살아. 오늘 하루 짜짱내지 말고.’ 이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 내 안에서 찬양이 흘러나왔다. 성령님께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머나먼 이스라엘 땅에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을 ‘그날 이곳에서 나에게’ 들려주셨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삶이 달라진다. 얼굴빛이 달라진다. 삶의 가치가 달라진다. 비전이 달라진다. 말이 달라진다. 몸짓이 달라진다. Q.T는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질 때, 바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신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계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은 신나는 일이다. Q.T의 시간을 가지는 순간, 성령님은 바쁘게 우리의 마음속을 두드리며, ‘바로 그 때,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다. ☺

성령과 Q.T - 라준석 변화시키시는 성령님

QT는 성령님께서 사람을 바꾸시기 아주 좋은 시간이다.

조용히 홀로 무릎을 꿇는 시간이야말로 성령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바꾸시는 시간이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이 변한다. 가치관이 바뀐다. 새로운 비전이 생긴다. 존경하는 사람들의 종류가 바뀐다. 새로운 비전이 생긴다. 존경하는 사람들의 종류가 바뀐다. 전에는 별볼일 없게 여겨지던 사람이 이제는 한없이 존경스러워 보이게 된다. 삶의 스타일이 바뀐다.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이 바뀌며,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이 바뀐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일어나는 결과가 있으니, 그것은 이처럼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다.

사도행전에는 성령님의 역사로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 나타난 결과는 그들이 변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겁 없이 예수님을 이야기하였다. 사람들은 그들의 변한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술에 취하였다는 진단을 내린다. 그러나 자기들이 먹는 술과는 전혀 다른 새 술이라고 말한다. 갑자기 변한 제자들의 모습을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성령님의 역사로 변한 제자들은 불같이 살아간다. 얻어맞아도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전한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담대하게 자신들은 증인이라고 선포한다. (행 2:32)

누가 이들을 바꾸었는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께서서는 오늘도 사람들을 바꾸시기를 원하신다.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생명 있는 사람들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힘없이 능력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담대하고 능력 있는 변화된 사람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역사하신다. 또한 말씀하신다. 그러나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 않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경험들이 꼭 차 있기 때문이다. 이것들을 포기하고 성령님의 인도로 무릎을 꿇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변화될 것이다. 변화된 사람의 모습에는 감동이 있다. 변화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성령님은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킨다.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뻐할 줄 모르던 사람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으로, 평화를 누릴 줄 모르던 사람을 평화를 누릴 줄 아는 사람으로, 한 번 참기가 힘든 사람을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으로, 자비한 사람으로

로, 착한 사람으로,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집을 꺾을 줄 아는 온유한 사람으로, 절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신다. 놀라운 변화이다. 사람이 교육으로 바뀌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가 어느 한 순간에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다.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한 순간에 일어나지만, 성품의 변화는 일평생 일어난다. 그러므로 변화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QT는 성령님께서 사람을 바꾸시기 아주 좋은 시간이다. 조용히 홀로 무릎을 꿇는 시간! 이 시간이야말로 성령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바꾸시는 시간이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쳐야 할 부분들을 말씀하신다. 때로는 아주 충성스러운 부분을 칭찬하신다. 계속해서 그렇게 살라고 용기를 주신다. 때로는 방향을 바꾸어 주신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세심하게 말씀하신다. 마치 의사가 메스를 들고 고쳐야 할 부분을 수술하듯이,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바뀌어야 할 부분들을 수술하신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내어 놓기만 하면, 영혼의 무릎을 꿇고 QT를 통하여 그분 앞에 서기만 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고치시기 시작한다. 아주 기쁘게! 그러므로 QT는 변화의 시간이요, 내가 고침을 받는 시간이다. 변화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QT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시간이기도 하다.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이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다.

성령과 Q.T - 라준석

예배하게 하시는 성령님

나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QT도 예배인 것이다.

그러므로 QT는 성령님의 인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는 예배 시간이 좋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새로운 힘이 난다. 밥을 열 끼니 먹은 것보다 더 힘이 난다. 예배에는 비밀이 있다. 무척이나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나에게 비밀스런 변화가 일어난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배이다. 하나님은 전도서에서 인간의 본분을 이렇게 말씀하신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 12:13)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심계명의 제 1계명은 무엇인가? 역시 예배이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만이 예배 받을 수 있는 분이시다. 예배가 빠져버린 인생은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이 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제 1계명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죽이고 살리고, 낮추고 높이고,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고 천국에 올릴 수 있는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찬송이 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멍하니 서있을 수 있겠는가? 그분을 향한 노래가 나오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기도가 있다. 모든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부탁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말씀을 듣게 된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를 좋아하시며 그

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고 싶어하신다. 진정한 행복을 위한 말씀들! 예배는 행복한 시간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요 16:27)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사랑하신다. 만나주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배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 하실 것이요” (요 15:26) 또한 성령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일어나는 결과가 있다.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결과가 있다. 그것은 예배이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빌 3:3) 이 말씀에서 ‘봉사’라는 말은 예배로 번역되는 것이 더 좋다. ‘성령으로’ 라는 말은 이런 뜻이다.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로 성령님과 함께. 그러므로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과 함께 드릴 때에 가능하다. 성령님은 예배에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QT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나 홀로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다. ‘예배’ 시간인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QT에 역사하신다. QT는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다. 도덕적인 정보를 얻는 시간이 아니다. QT는 예배이다. 그러므로 QT는 성령님의 인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성령님의 인도로 QT가 이루어질 대에, QT는 그저 성경 공부나 도덕적인 정보를 얻는 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그분과 만나는 시간이 된다. 감격으로 말하고 가슴 떨림으로 듣는 시간! 이 시간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시간!’이다. ☺

성령과 Q.T - 라준석

살리시는 성령님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다 (롬 8:2)

그러기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살아나게 된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쁘다. 요즈음 우리 집의 네 식구 외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태어났다. 올챙이다. 내 아들 정흠이야 경흠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개구리 알을 분양해 주었다. 경기도 양평시골에서 개구리 알을 가져다가 몇 개씩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것을 키우게 해썬. 학교에서 가져온 지 하루가 지났는데, 어항에 뭔가 움직이는 검은 색의 물체가 나타났다. 올챙이였다. 꼬물꼬물 움직이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다. 뭉쳐있던 알이 움직이는 올챙이가 된 것이다. 아내와 두 아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보고 있었다. 하루가 다르게 커졌다. 며칠이 지난 지금은 제법 큰 올챙이가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 개구리가 될 것이다. 살아있다는 것은 기쁨이다. 또한 살아난다는 것은 기쁨이다.

사도행전을 읽어가노라면 가슴 깊이 스며드는 느낌이 있다. 기난긴 겨울이 지나 화사한 봄이 되어 대지가 살아날 때 스며드는 그런 느낌이다. 한번의 설교에 무려 3000명씩이나 회심하고 있다.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 어두움

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고 있다. 불안과 근심이 사라지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임하고 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임하고 있다. 겁쟁이가 변하여 외치는 자가 된다. 위협을 당하고 얻어맞아도 할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살면서도 그들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있다. 무언가가 살아나고 있다. 그 중심에 누가 역사하는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곳마다 살아나고 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다(흠 8:2). 그러기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살아나게 된다.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영생을 얻게 된다. 죽음이 물러간다. 영생을 얻게 되는 길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때에만 살아날 수 있다. 또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생기를 얻게 된다. 낙망하고 힘을 잃은 영혼이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살맛을 잃고 살아가던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살맛을 찾게 된다. 용기가 생긴다. 새 힘이 생긴다. 전에는 살지 못할 것 같았는데, 이제는 살 수 있을 것 같다. 깨어진 관계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관계가 살아난다. 미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된다. 저주의 관계가 중보기도의 관계가 된다. 경쟁이 관계가 연합의 관계가 된다. 살아나는 것이다.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시다.

QT는 살아나는 시간이다. 메말랐던 대지가 물을 머금어 촉촉해지듯이, 축 늘졌던 나뭇가지가 수액을 받아 살아나듯이, 시들었던 꽃봉우리가 날개를 다시 펴듯이 그렇게 살아나는 시간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다. 말씀은 빛이 되어 영혼 속에 비취게 된다. 영혼이 살아난다.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을 가진다. 기도시간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 다시 뛰어갈 용기가 생긴다. 다시 날아갈 새 힘이 생긴다. 넘을 수 없는 문제로 다가왔던 상황들이 이제는 소화해낼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온다. 그렇게 살아나는 시간이 바로 QT이다. 그러기에 성령님은 QT에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시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QT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싶어하신다. 살 맛나게 하고 싶어하시는 것이다. ☺

성령과 Q.T - 라준석

위로하시는 성령님

QT를 할 때 성령님은 위로하신다.

그러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위로를 받는 행복한 시간이다.

QT는 위로받는 시간이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한없이 위로받는 시간이다. 시들해져버린 나뭇잎이 물을 머금고 살아나듯이, 지쳐버린 나의 영혼이 위로를 받아 다시금 4월의 연초록 나뭇잎처럼 살아나는 시간이다. 성령님은 QT에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나를 위로하셔서 똑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며, 내 곁에 계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힘들어 할 때에 성령님은 위로하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에 '보혜사'라고 소개해 주셨다. (요 14:16, 26) 이 말은 쉽게 번역하면 '옆에 계시는 분'이라는 뜻인데, 또한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고 성도의 수도 많아졌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령의 위로로'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성령님의 위로하는 역사로 말미암

아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권위의 은사'가 있다. (롬 12:8) 이것은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이다. 성령님으로부터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된다. 몇 마디 말을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위로하시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불안한 성도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신다. 용기 잃은 성도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신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어쩔 줄 몰라하는 성도에게 다시 일어서서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확증시켜 주신다. (롬 8:16)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가슴으로 밀려들어올 때 나는 큰 위로를 받는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내 아버지'인데, 그 분이 나의 이 어려운 형편을 능히 해결해 줄 수 있지 않는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내 아버지'인데 나의 이 어려운 형편과 내 눈에 고인 눈물을 능히 알고 계시지 않는가! 성령님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다.

또한 성령님은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신다. 어렵고 힘들 때에 말씀을 주신다. 말씀을 읽거나 기도할 때에, 성령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주신다. 요즈음 은혜스럽게 다가오는 말씀은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이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다. (사43:1-3)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단다. 싫다고 말씀하지 않는단다.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단다. 어디에 서 있어도 나를 붙잡아 주신단다. 나를 도와주신단다. 또한 성령님은 사람을 보내어 위로하신다. 낙심하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통해 위로의 말씀으로 용기를 주신다.

성령님은 위로하신다. 내가 QT를 할 때에 성령님은 위로하신다. 그러기에 QT는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는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것이다.

성령과 Q.T - 라준석

평안케 하시는 성령님

세상을 향해 관심 끝! 주님께로 시선집중!

나의 마음을 두드리신다. 그때에 바로 진정한 평안이 온다.

넓은 바다에 늘 일렁이는 파도가 있듯이, 우리네 인생에도 늘 일렁거리는 문제가 있다. 넘을 수 없는 담벼락처럼 딱 버티고 서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그 벽들 앞에서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불안을 감추고자 호들갑을 떨면서 만용을 부리기도 한다. 그러는 우리에게는 평안이 필요하다. 참 평안이 필요하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예수님의 평안' (요 14:27)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은 어떠한 평안인가? 그것은 문제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다. 폭풍우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잠을 잘 수 있는 평안이다.

진정한 평안은 모든 문제 상황이 제거되므로 오는 것이 아니다. 갖고 싶은 것을 모두 소유하므로 오는 평안이 아니다. 하고 싶은 것을 모두 다 하므로 오는 평안이 아니다.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온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과거를 책망치 않으시고 늘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용납하시는 예수님,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님, 세상은 나를 포기해도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평안이 온다. 문제의 파도가 여전히 철썩거리고 있지만, 그 파도를 넘어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평안이 온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알게 된다.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분이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 거기에 참 평안이 있다. 그러기에 성령님께서 맞게 하시는 열매 중에 '평안'이 있다. 성령님은 크고 작은 문제들 너머로 여전히 하마께 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의 눈을 고정시키신다. 한 눈 팔지 않고 그분께로 향하게 한다. 시선집중! 시선고정! 바로 그 때에 평안이 온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 비밀을 알았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즉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선포하였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사 26:3) 나의 영혼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시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QT는 나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시키는 시간이다. 분산된 생각들을 접고, 주님께 나의 영혼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QT이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서는 QT에 역사하신다. 우리가 QT를 가질 때마다 성령님은 기쁜 마음으로 역사하신다. 부지런히 역사하신다. 세상을 향해 관심 끝! 주님께로 시선집중! 나의 마음을 두드린다. 그 때에 바로 진정한 평안이 온다. QT는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는 시간이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너머로 들려오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 덮쳐오듯 엄습하는 문제의 소용돌이 너머로 빙그레 웃으시며 '내가 네 곁에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얼굴이 모이기 시작한다. 식을 대로 식어버린 마음들 너머로 여전히 끓는 용광로처럼 다가오시는 주님의 뜨거운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성령님의 역사로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거기에 평안이 있다. ☺

성령과 Q.T - 라준석

할 말을 가르쳐주시는 성령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할 말을 예비하는 시간이 바로 Q.T이다.

만날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는 할 말을 준비할 수 있다.

말하는 것은 누구에나 고민거리이다. 무엇을 말하지? 어떻게 말하지? 그렇게 고민하다가 심사숙고해서 한 말인데도, 무언가 말을 해 놓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참 잘 했구나!' 생각될 때는 그리 많지가 않다. 아쉽기도 하고, 후회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네 말이다. 말은 잘해야 한다. 말만 잘 해서는 안되지만, 말은 잘해야 한다. 말을 잘 하면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 가정을 살릴 수 있다.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 좋은 말인가? 어떻게 말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화려한 말, 유창한 말? 그렇지 않다. 화려한 말이 좋을 때도 있고, 소박한 말이 좋을 때도 있다. 유창한 말이

좋을 때도 있고, 더듬거리는 말이 좋을 때도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말은 '때에 맞는 말' (잠 15:23) 이다. 상황에 맞는 말이다. 경우에 맞는 말이다. 대상에 맞는 말이다. 이런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놓인 금사과처럼 아름답다. (잠 25:11) 어떤 사람은 마치 '수영장에 한복을 입고 나온 것 같은' 말을 한다. 전혀 그 경우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 꼭 집어서 말하는지, '맞춤' 같은 말을 한다. 안아주고 싶을 정도로 예쁘다. 또한 좋은 말이 있다. 그것은 '은혜를 끼치는 말' (엡 4:29)이다. 사람을 살려주는 말이다. 용기를 주는 말이다. 칭찬하는 말이다. 잘못된 길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말이다. 들으면 힘이 나는 말이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말하면 된다.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주시는 분이 계시다. 성령님이시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마 10:19-20) 성령님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다. 제자들도 말하는 것이 고민되기는 마찬가지였는가 보다. 어쨌든 성령님께서 할 말을 가르쳐주시겠다는 것이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소망을 가져 본다. 낙심한 형제나 자매가 나를 만나, 커피 한 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내가 그에게 건넨 몇 마디 말 때문에 용기를 얻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에 대해 전혀 관심 없던 사람이 내가 한 말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고, 눈에 눈물이 고였던 사람에게 내가 한 몇 마디 말로 인해 그의 가슴에 노래가 맴돌 수 있다면! 축 늘어졌던 내 가족의 어깨가 나의 사랑의 말 때문에 다시 올라가고 그의 주먹이 불끈 쥐어질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는가? 우리가 매일매일 할 말을 미기 예비하고 하루를 준비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 수가 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할 말을 준비하는 시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할 말을 예비하는 시간이 바로 Q.T이다. 만날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는 할 말을 준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리는 말들을 준비할 수 있다. 우리는 진지한 말을 해야 한다. 특히 가족들에게 진지한 말을 해야 한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한다. 칭찬하는 말을 해야 한다. 사랑의 고백을 해야 한다. 그 사람에게 맞는 정확한 말을 해야 한다. 그 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시간이 바로 Q.T이다. 좋은 말을 들은 자만이 좋은 말을 할 수 있다. 성령님의 인도로 하루의 할 말을 준비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Q.T이다. ☺

성령과 Q.T - 라준석

마음을 바꾸시는 성령님

Q.T를 할 때에 성령님은 마음을 바꾸신다. 사건을 바라보는 마음을 바꾸시고,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을 바꾸신다.

걸어가야 할 인생길에 대한 마음을 바꾸시고, 일에 대처하는 마음자세도 바꾸신다.

이런 말이 있다.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르

는 것은 당연하지만,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다.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성적인 것 같기도 하고 외향적인 것 같기도 하고, 착한 것 같기도 하고 못된 것 같기도 하고, 적극적인 것 같기도 하고 소극적인 것 같기도 하고. 또한 내가 내 마음을 바꾸지 못할 때가 있다. 웅졸한 마음, 딱딱한 마음, 날카로운 마음, 좁은 마음, 분이 가득한 마음, 이런 마음은 바꾸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다. 안된다. 거의 불가능하다.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다.

그러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계시다. 성령님이시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겔 11:19) ‘새 신(a new spirit)이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오시면 마음이 바뀐다.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굳은 마음’이란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라는 뜻이다. ‘부드러운 마음’이란 ‘고기같이 부들부들한 마음’이란 뜻이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돌같이 단단한 마음도 고기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

성령님은 음식에 대한 마음도 바꾸신다. 나는 양식을 잘 먹지 못했다. 중화요리 중에서도 자장면을 잘 먹지 못했다. 탕수육도 잘 먹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어떤 음식도 잘 먹는다. 돌 빼놓고는 다 먹는다. 없어서 못 먹지, 음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다 먹는다. 성령님은 성격도 바꾸신다.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내성적인 사람이었다. 부끄워하고, 자신 없어하고, 말도 별로 하지 않고, 얼굴 빨갛게 수줍어하는 지극히 내성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는 기도했고, 성령님은 나의 성격을 바꾸셨다. 지금은 너무 씩씩해서 좋은 건지, 안좋은 건지... 성령님은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도 바꾸신다. 나는 떠벌리는 사람이 싫었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는 말하기도 밥 먹기도 싫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바꾸시니, 떠벌리듯이 말하는 사람은 그래서 좋고, 조용하게 말하는 사람은 그래서 좋다. 성령님은 인생길에 대한 마음도 바꾸신다. 나는 얼마 전까지 선교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시니, 예수님을 전하는 것보다 급한 일은 없다는 마음뿐이다. 그 무엇보다도! 요즈음은 온통 젊은이 생각이다. 성령님은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마음도 바꾸신다. 전에는 힘든 사건이 오면 움츠리기도 했는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시니, 큰 사건들이 올 때에 겁먹지 않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편이신데...’ 하는 마음에 당당하게 대처한다. 그렇다. 성령님은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시다.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 좋은 시간이 바로 Q.T이다 홀로 무릎 꿇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그 시간! Q.T를 할 때에 성령님은 마음을 바꾸신다. 사건을 바라보는 마음을 바꾸시고,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을 바꾸시고, 걸어가야 할 인생길에 대한 마음을 바꾸고, 일에 대처하는 마음자세도 바꾸신다. 돌 같은 마음도 깨뜨려서 고기 같은 마음으로 바꾸신다. 송곳같이 뾰족한 마음도 녹여서 반죽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 ‘새 마음’을 주신다. 마음이 바뀌면 결정이 바뀐다. 결정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인생이 바뀌면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변한다. 살아있는 사람으로!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내 마음을 성령님께서 기가 막히게 바꾸시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Q.T이다. 그래서 좋은 시간, 무지무지 좋은 시간! ☺

성령과 Q.T - 라준석

비전을 주시는 성령님

*Q.T는 성령님의 역사로 꿈을 꾸는 시간이다. 새로운 비전을 받는 시간.
그 비전을 계속해서 확인받는 시간. 그 비전이 구체화되는 시간!*

나에게는 한 꿈이 있었다. “아침에 해 떠오를 때, 그 바닷가에서 수많은 젊은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다.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다. 그 꿈이 이루어졌다. 1년 전, 우리 청년부는 강릉 경포대로 갔다. 자원하는 청년들이 하루 전에 먼저 가서 경포대 모래밭에 무대를 만들었다. 조명탑을 세웠다. 웬만한 조명은 직접 만들었다. 발전차를 빌리고, 음향을 설치하였다. 아주 근사하였다.

토요일 오후, 젊은이 800여명이 함께 경포대로 떠났다. 떠나는 날 오전에는 비가 억수로 왔다. 우리는 기도했고, 그 비는 오후 4시경에 그쳤다. 버스 21대가 장관을 이루며 출발하였다. 대관령을 넘는데 바람은 시원했고 보름달은 유난히 밝고 아름다웠다. 바닷가에 도착하여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트럼펫 연주도 있었다. 나도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그러다가 삼삼오오 나누어져 이야기를 나누었다. 쏟아지는 별빛 아래 모래밭에서 그렇게 긴 이야기를 풀었다. 그리고는 5시 30분에 다시 모였다. 6시 3분에 일출이 있다가, 우리는 그 시간에 맞추어 찬양하기 시작하였다. 예정된 시간이 되었을 때, 태양이 떠올랐다. 장관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푸른 하늘을 펼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트럼펫과 함께 찬양이 들려졌다. 고백의 찬양과 함께 하나 둘 해안선을 따라 펼쳐졌다. 손을 들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으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찬양을 했다. 그리고는 모래 백사장에 피끓는 젊은이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 인생과 가정과 민족을 위하여! 춤을 추었다. 마음껏 춤을 추었다. 기쁨을 주신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춤을 출 이유가 있었다. 생명이 있기에! 매운탕을 먹었다. 바다를 바라보며 먹는 매운탕은 일품이었다. 그 새벽의 해변축제를 잊을 수가 없다. 그 날 그 예배로 인해 많은 사람이 살아났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었다. 성령님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그 꿈을 주셨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꿈이 생긴다. 요엘서 2장 28절과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환상’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신다. ‘비전(vision)’이다. ‘꿈’이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을 가슴에 품고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싶으실 때,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면 그것이 나에게는 구체적인 비전으로 다가온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비전을 주셨다. ‘로마에 가고 싶다. 복음을 전하러!’ (롬 1:9-15) 나에게는 구체적인 비전이 있다. “이 땅의 청년들을 살리고 싶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싶으실 때, 성령님의 역사로 그 마음을 알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는 비전으로 다가온다. 그렇다. 성령님은 비전을 주신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게 하신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꿈이 생긴다. 그렇다면, 그 꿈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을 살리고 싶은 꿈! 그 꿈을 주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예수님도 일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은 그 꿈을 주신다. 구체적인 꿈을 주신다.

Q.T는 성령님의 역사로 꿈을 꾸는 시간이다. 새로운 비전을 받는 시간, 그 비전을 계속해서

확인받는 시간, 그 비전이 구체화되는 시간! 그 시간은 바로 Q.T이다. 비전은 야망과 다르다.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야망은 자기로부터 온다. 비전은 망상과 다르다. 비전은 어려움이 올수록 더욱 성명해지지만, 망상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사라진다. 세상적인 꿈은 잠잘 때 꾀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꿈은 깨어 있을 때 꾀다. 깨어 있으면서 꿈을 꾸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Q.T이다. 매일 아침 새로운 비전을 품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꿈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우리네 삶은 훨씬 더 살맛나고 박진감 있을 것이다. ☺

성령과 Q.T - 라준석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성령님

*Q.T! 그 행복한 시간! 끊임없이 성령님의 인도로 예수님 앞에 서서
그분을 닮아갈 때에, 우리네 삶은 아름답고, 상큼하고, 박진감 넘치는 순간들이 될 것이다.*

사람은 누군가를 닮아가게 된다.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또한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그런 과정에서 좋은 싫든 누군가를 닮아가게 된다. 영향력 안에서 사는 존재, 그래서 닮아가는 존재, 그가 인간이다. 물론 선천적으로 핏줄을 통해서 닮는 경우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내 아들들도 나를 썩 빼닮았다. 내 아들들은 신앙이 좋고, 참 착하다. 핏줄이 같기 때문에 닮은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한참을 함께 지내다보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된다. 말하는 어투, 옷 입는 스타일, 가치관, 좋아하는 음식, 걸음걸이, 손놀림, 삶의 목표, 머리모양 등.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신다. 성령님은 나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하셨다.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요 15:26) 성령님은 부단히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나에게 역사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고전 12:3) 성령님은 부단히 나를 예수님께서로 이끄신다. 그리고 그분을 닮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다. 성령님은 내 속에 예수님의 성품을 주신다.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것이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은 모두가 좋은 성품들이다. 예수님의 성품들!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서 성품이 바뀌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Q.T이다. 조용하게 나를 예수님께서로 이끄신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앉게 하신다. 복잡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대단한 고백을 하지 않아도, 호들갑스럽게 아부 섞인 말을 하지 않아도, 그저 그분 앞에 앉아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분을 닮게 되어 있다. 누군가와 커피 한 잔을 마시면 그 시간만큼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 닮게 되는 것처럼, 말씀을 앞에 놓고 예수님과 앉아 있으면 그 시간만큼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다. 삶의 목표가 바뀐다. 우선순위가 바뀐다.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바뀐다. 포기할 것과 포기해서는 안될 것의 종류가 바뀐다.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바뀐다. 포기할 것과 포기해서는 안될 것의 종류가 바뀐다. 깔끄러운 밤송이 같은 못되먹은 성품들이 드러나게 된다. 그것들이 치료를 받게 된다. 그리고는 부드러운 바나나 속살 같은 우아한 성품들로 바뀌게 된다. 그러기에 성령님은 계속해서 나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 아주 강하게 성령님께서 역사

하시는 시간,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시간, 그 시간이다.

나는 요즈음 행복하게 산다. 짜증나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어깨가 축 쳐지게 하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니다. 살아가노라면 하루에도 몇 번씩 속을 끓는 일이 생기게 마련이다. 겁먹는 일이 생기게 마련이다. 나 혼자 잘 산다고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아니다. 어깨가 축 쳐지게 하는 일일 없는 것이 아니다. 살아가노라면 하루에도 몇 번씩 속을 끓는 일이 생기게 마련이다. 겁먹는 일이 생기게 마련이다. 나 혼자 잘 산다고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아니다. 가족이 속을 썩이지 않는다고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난데없이 친척이 속을 썩이기도 한다. 난데없이 엉뚱한 사람이 계속해서 속을 썩이기도 한다. 그러나 성령님께서서는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셨다. 그것은 기쁨의 성품이다. 내 가슴에 노래를 주셨다. '기쁨'이란 나에게 소유가 많아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좋아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시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 그분이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위치, 현재의 나의 형편은 나에게 '베스트'라는 확신! 그 확신으로부터 솟아나는 것이 '기쁨'이다. 성령님은 '기쁨'을 주셨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닮게 하셨다. Q.T! 그 행복한 시간! 끊임없이 성령님의 인도로 예수님 앞에 서서 그분을 닮아갈 때, 우리네 삶은 아름답고 상큼하고 박진감 넘치는 순간들이 될 것이다. ☺